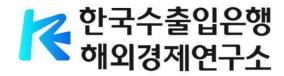
국별 리포트

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8. 4

I. 일반개황 1
Ⅱ. 경제동향 2
Ⅲ. 정치·사회동향 9
Ⅳ. 국제신인도 11
V. 종합의견 12



I. 일반개황

면 적	86.6천 km²	G D P	392억 달러 ('17)
인 구	9.5백만 명	1 인 당 GDP	4,098달러 ('17)
정 치 체 제	대통령중심제	통 화 단 위	Azerbaijani Manat(AZN)
대 외 정 책	EU 협력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	환 율(달러당)	1.72

- □ 1991년 독립이후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, 2003년에 취임한 알리예프 대통령이 2018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여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.
- □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에 대형 유전,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, 서방에 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 터키로 연결되는 송유관, 가스관을 건설하고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.
- □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-카라바흐 영토 분쟁이 지속되며 현재까지 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정치, 경제,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□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,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며 EU와 에너지, 운송 등의 부문에서 경제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, 2014년 이후에는 러시아와 의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Ⅱ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丑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4	2015	2016	2017 ^e	2018 ^f
경 제 성 장 률	2.7	0.7	-3.1	-1.0	1.3
소비자물가상승률	1.4	4.0	12.4	12	8.0
재정수지/GDP	2.7	-4.8	-1.1	-0.3	0.7

자료: IMF

□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 다소 개선

- 카스피해 지역의 새로운 유전의 개발 부진과 생산정체로 2010년 이후 원유 생산량이 감소추세이며,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 음.
 - 아제르바이잔 전체 원유생산의 80%를 생산하며, 매장량이 50억 배럴로 최대 유전인 ACG(Azeri-Chirag-Guneshli)의 생산 정체로 인해 원유 생 산량은 2010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임.
 - * 원유 생산은 2010년 5,080만 톤을 생산한 이후 2012년 4,210만 톤, 2015년 4,160만 톤, 2016년에는 4,10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.
 - 경제성장률은 원유 생산정체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의 2.7%에서 2015년 0.7%, 2016년 -3.1%로 하락하였음.
 - 2016년의 -3.1%에 이어 2017년에도 -1.0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 나, 2018년에는 에너지 생산 증가로 1.3%의 플러스 경제성장률로의 반 등이 전망됨.

- 최대 가스전인 샤 데니즈(Shah Deniz)-2 가스전이 2018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가스 생산과 수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
 - * 샤 데니즈 가스전은 BP, Statoil이 각각 25.5%, SOCAR(아제르바이잔 국 영석유공사), Lukoil, Total, NIOC 등이 각각 10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진행되는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20억㎡, 2020년에는 60억㎡의 추가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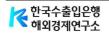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샤데니즈 가스전과 가스관

자료: https://www.bp.com/en_az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추세

- 2016년 마나트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 가상승률이 12.4% 상승하였으며, 2017년에도 12% 상승하였음.
-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에 대응하여 2016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의 3%에서 15%로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며, 2017년에 는 15%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고, 2018년 2월에는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13%로 인하하였음.
- 2018년에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환율이 안정되며(2017년 1월 달러당



1.82 마나트를 기록하였으며, 4월 이후 달러당 1.7 마나트를 유지), 물가상승률도 8.0%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

-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수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수지 적자 폭은 감소함.
-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의 GDP 대비 -1.1%에서 2017년에는 -0.3%로 줄어들었으며, 2018년에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0.7% 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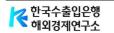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

-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%, 재정의 60~70%, GDP의 1/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 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, 정부에서 '2015~2020 산업 발전프로그램'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평가됨.
- WTO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, 국내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단시일 내에 가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은행 부문의 취약

- 은행권 부실여신의 비중이 높으며, 정부는 2017년 최대은행의 채무재 조정을 실시하였음.
- 금융 부문이 취약하여 신규대출과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, 정부는 2017년 5월 최대 은행인 IBA가 만기도래 원리금 상



환에 실패한 이후, 33.4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.

- Moody's는 2017년 8월 금융권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와 금융 부문 취약성 지속에 따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한 바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부존자원 개발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

- BP의 자료에 의하면,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말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70억 배럴(세계 확인매장량의 0.4%)에 달하는 원유와 1.1조 m³(세계 확인 매장량의 0.6%)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.
- 2016년 기준으로 원유 생산은 연 4,100만 톤으로 세계 전체 생산의 0.9%이며, 천연가스 생산은 175억 m³로 세계 전체 생산의 0.5%를 기록 함.
-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아제르바이잔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망 구축을 위해 TANAP(Trans-Anatolian Pipeline) 프로젝트가 추진되 고 있음.
- TANAP 가스관은 샤 데니즈에서 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SOCAR 59%, 터키 BOTAS 30%, BP 12%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.
- TANAP 가스관 건설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이 5억 달러, 유럽투자은 행(EIB)이 11.5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.
- TANAP 가스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TAP(Trans-Adriatic Pipeline)와 연결되며, 이를 통해 그리스, 알바니아, 이탈리아 등으로 연 100억 m³의 가스를 공급하게 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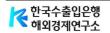
<그림 2> TANAP, TAP 가스관

자료: www.offshoreenergytoday.com

□ 운송인프라 발전을 통한 물류망 확대와 주변국들과의 협력 확대

- 2017년 10월의 바쿠-트빌리쉬-카르스(Baku Tbilisi Kars, BTK) 철도 완공을 통해 조지아를 거쳐 터키로 연결되는 물류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.
- 이 철도는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, 터키 간의 협력으로 2005년부터 추진 되어 왔으며, 중장기적으로 중국, 인도의 화물을 유치하여 운송량이 확 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완공 초기에는 연 650만 톤의 화물과 100만 명의 여객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되며, 향후 최대 물동량은 연 1,700만 톤으로 추정됨.
- 중국에서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트랜스 카스피 해 국제교통로(TITR)를 통한 운송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
- TITR은 중국에서 카자흐스탄,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, 터키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망이며, 이 운송루트를 통해 약 4,200㎞ 의 거리를 8일에 걸쳐 운송할 수 있게 됨.

□ 관광 부문 육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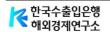
- 정부는 관광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, 2018년 1월에는 구바, 구사르, 히지-나브란 등 3개 지역을 관광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.
- BTK 철도를 비롯한 운송 인프라의 개선은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에너지 수출소득을 활용한 경제, 사회 인프라 부문 투자

-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수출소득으로 국부펀드(SOFAZ: State Oil Fund of Azerbaijan)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펀드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.
 - SOFAZ는 2017년 61억 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였으며, 2018년에 도 약 92억 달러를 정부 예산에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 - 에너지 수출소득 증가에 따라 국부펀드 기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358억 달러를 기록하여, 연초의 331.47억 달러에 비해 8%가 증가하였음.
-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, 사회 인 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- 대표적인 인프라 개발로는 바쿠-트빌리쉬-카르스(Baku-Tbilisi-Kars: BTK) 철도, 사무르-압쉐론(Samur-Absheronaz) 관개시설, 정유 설비 등의 건설이 있음.
- 사회부문의 인프라사업으로는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-카라바흐 영토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생활 및 정착 지원, '2007-2015 청년해외교 육 프로그램'지원 등이 있음.

3. 대외거래



□ GDP 대비 1.9%의 경상수지 흑자 기록

○ GDP 대비 경상수지는 에너지 생산량의 감소와 국제에너지 시장의 가격 하락에 따라 2015~2016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, 2017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,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.

< 至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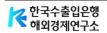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4	2015	2016	2017 ^e	2018 ^f
경 상 수 지	9,964	-222	-1,363	732	1,056
경상수지/GDP	13.3	-0.4	-3.6	1.9	2.5
상 품 수 지	18,928	5,812	4,206	7,391	7,898
수 출	28,260	15,586	13,211	16,125	16,985
수 입	9,332	9,774	9,004	8,734	9,087
외 환 보 유 액	14,647	6,291	5,836	6,500	6,760
총 외 채 잔 액	5,798	12,008	17,068	17,240	16,681
총외채잔액/GDP	7.7	23.6	45.4	44.0	39.0
D. S. R.	5.2	5.5	8.1	11.1	10.5

자료: IMF, OECD, EIU.

□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

- 2017년의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 16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2018년에도 약 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수출액의 증가에 따라 외환소득이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은 2016년의 약 58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6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2018년에도 67.6 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□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외채상환비율은 안정적이나, GDP 대비 정부부채는 높은 비중
 - 총외채 잔액은 2016년의 약 116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77.6억 달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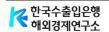
로 증가하였으며,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175.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율은 2016년 45.4%, 2017년 44%로 유사한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, 2018년에는 39%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- 외채상환비율(D.S.R.)은 안정적 수준이며, 2016년 8.1%, 2017년 11.1%를 기록하였으며, 2018년에는 10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금융권의 채무재조정으로 인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16년의 51.1%, 2017년 46.4%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- □ 알리예프 대통령이 2003년 이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4선에 당선
 - 알리예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대선에서 86%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.
 - 2009년의 헌법개정으로 3선 중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, 2016년에는 대통령 임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,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이 강화됨.
 - 알리예프 대통령은 2017년 2월에는 부통령직을 신설하고 자신의 부인 인 메흐리반 알리예바를 수석 부통령으로 임명하였으며, 대통령 유고 시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음.
 - 전체 의회 의석수 125석 가운데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과 친여당 의 석이 110여석 이상으로 여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 음.

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반정부 집회 개최

- 높은 물가상승률 및 실질소득 감소와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에 대한 국 민들의 불만이 결합하여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.
- 2017년 4월에는 알리예프 대통령 부인의 부통령직 임명과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비판하는 집회가 약 3,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쿠에서 개최되었으며, 9월에도 1,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쿠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음.
- 2018년 3월 말, 4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보이콧을 주 장하는 시위가 바쿠에서 발생하였음.
- 2018년 월평균 임금은 2017년에 비해 4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, 2017년 12%에 달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.
- 주요 반정부 인사에 대한 구속, 정부 비판 언론인 구속, 국제 NGO 단체의 아제르바이잔내 활동제한, 국내 NGO 단체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 금지 등의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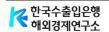
3. 국제관계

□ 아르메니아와의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상태 지속

- 1991년에 발생한 나고르노-카라바흐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아제르바이 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.
 - 1994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, 2016년 4월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충돌이 지속되어 아제르바이잔의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.

□ EU와의 협력 지속

○ 아제르바이잔은 EU와 정치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, 국내 언론, NGO 정책은 EU의 비판을 받고 있음.



- 1996년에 'EU-아제르바이잔 파트너 협력(agreement 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)'이 체결되었으며, EU는 2009년 구소련의 아르메니아, 벨라루스, 조지아, 몰도바,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을 '동방 파트너' 국가에 포함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.
- EU는 가스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지역으로부터 가스 수입을 위한 수송로 연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, 영국, 노르웨이, 프랑스 등은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음.
- 그러나,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은 EU로부터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, EU와의 협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.

Ⅳ. 국제신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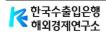
1. 외채상환태도

□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

- 2017년 9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2억 530만 달러, 중장기 37억 5,950만 달러 등 40억 125만 달러임.
- ECA 외채 잔액은 2016년 10월의 41억 1,870만 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한 금액이며, 이 가운데 단기 1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음.

2. 국제시장평가

- □ 신용평가기관들이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, S&P와 Fitch 는 2018년 1, 2월 등급 전망을 '부정적'에서 '안정적'으로 조정
 - S&P는 2018년 1월, Fitch는 2월 마나트화 환율 안정, 금융부문의 구조조 정의 긍정적 평가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전망을 기존의 '부정적'에서 '안 정적'으로 조정하였음.



<丑 3>

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5등급 (2018. 1)	5등급 (2017. 1)
Moody's	Ba2 (2017. 8)	Ba1 (2016. 4)
Fitch	BB+ (2018. 2)	BB+ (2017. 2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丑 4>

한 아제르바이잔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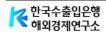
구	분	2014	2015	2016	2017	주요품목
<u></u> 수	출	269,573	122,289	118,289	53,310	자동차, 자동차 부품, 기계
수	입	54	3,404	337	885	냉난방기, 전자기기, 원 동기 및 펌프
합	계	269,627	125,693	118,626	54,395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□ 국교수립: 1992년 2월 23일(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)
- □ 주요협정: 항공협정('06), 외교관상호사증 면제협정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,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정(이상 '08),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('12),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,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협정(이상 '13)
- □ 대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(2017년 말 누계): 22건, 534만 달러

V. 종합 의견

- □ 에너지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17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으나,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며, 2018년에는 경기가회복되며 1.3%의 경제성장률과 0.7%의 GDP 대비 재정수지를 기록할것으로 전망됨.
- □ BTK 철도와 같은 국제운송로 연결을 통해 운송망이 크게 개선되었고, TANAP 가스관 건설을 통해 에너지 운송망이 발전하고 있으며, 이러한



물류망, 에너지 수송로 건설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- □ 2003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2018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86%의 득표율로 4선에 당선되어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.
- □ 대외적으로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EU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나,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 무기 를 수입하는 등 대러 관계는 개선되고 있음.
- □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외채상환비율(D.S.R.)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다소 높으며, 2018년 초 S&P와 Fitch는 신용등급전 망을 '부정적'에서 '안정적'으로 조정하였음.

조영관 선임연구원(☎02-6255-5759)

E-mail: ykj@koreaexim.go.kr